

---

# 서 평

---



## 비균질적 공간 속 비대칭적 인간들에 대한 미시사

[서평] 토드 A. 헨리(김백영 외 역)(2020), 『서울, 권력도시』,  
산처럼, 484쪽.

박 준 형\*

1915년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를 배경으로 한 안국선의 소설 『공진회』(1915)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진주 기생 향운개, 인력거꾼 김서방, 시골 노인 만초 선생, 그리고 만약 검열에 의해 삭제당하지 않았다면 순사와 외국인까지 포함했을 이 인물들의 이야기는 각각이 독립된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 서문에서 안국선은 “공진회의 여흥을 돕고자” 이 글을 썼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각 이야기에서 공진회는 스토리 전개와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단편적인 형태로만 등장한다. 예를 들어 기생편에서는 주인공인 향운개와 최유만의 러브스토리가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은 후 다음과 같이 공진회에서의 한 장면이 에필로그처럼 덧붙여져 있다.

공진회 구경 마당에서 외따로 떨어진 나무 그늘 밑에서 다수한 사람들이 모여서서, “참 반갑구나, 이 문둥아, 그 동안 어디 갔던 고!”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진주에서 올라온 늙은 기생 젊은 기생들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이요,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향운개와 강씨부인과 최유만이라.

마찬가지로 인력거꾼편에서 공진회는 몰락한 양반 김서방이 “총독정치의 공명함을 평생 감사하게 여기던 터”에 개과천선 후 경성협찬회에 익명의 기부금을 냈다는 소문 속에서, 또한 시골노인이야기편에서는 이야기를 풀어놓게 될 만초 선생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상경 이유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안국선 스스로 “총독부에서는 물산공진회를 광화문 안 경복궁 속에 개설하였고, 나는 소설 ‘공진회’를 언문으로 이 책 속에 진술하였도다”라고 밝힌 것처럼, 말하자면 소설 『공진회』는 공진회 자체를 선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1915년 식민지 조선을 살아간 인간들의 균상을 글 속에서 전시하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지닌 스토리의 고유성만큼이나 위와 같이 그들이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선전장인 공진회에 수렴되는 방식 또한 다양하게 그려졌는데, 누군가에게 공진회는 새로운 통치 권력에게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던 고향 사람들과의 해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던 것이다.

토드 헨리의 저서 『서울, 권력도시』에서 공진회를 비롯하여 식민지기에 개최된 박람회는 주요한 탐구 대상들 중 하나이다. 이 책의 서평을 쓰면서 안국선의 『공진회』 이야기부터 꺼낸 것은 양자가 박람회라는 공통의 소재를 다루고 있음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사실은 그를 넘어 양자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닮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서울, 권력도시』에서도 『공진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다양한 주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총독부 관리나 재조일본인에서부터 친일파 조선인이나 조선인 민족주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생, 박람회 여성안내원, 소매치기 등과 같이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민족적 구분만으로는 그 실체를 온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이들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시선은 그 어떤 대상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경성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 서로 다른 의도들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곳이 다름 아니라 박람회와 같은 ‘공공 공간’이었다고 말한다. 글의 장르는 물론 발간 시기도 크게 차이가 나는 두 저작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지만, 그 유사한 특징들을 다시금 각각의 맥락 속에 되돌려 놓아야만 그 글들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가능하겠기에, 이하에서는 『서울, 권력도시』의 문제 설정부터 한 발 더 들어가 살펴보기로 하자.

서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미셸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수용 위에 식민지 지배에 관한 몇 가지 재정식화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화주의’ 개념의 확대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화주의를 ‘일본’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좁은 개념으로만 이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동화의 논리가 근대적 담론 및 실천에 연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로부터 근대화라는 훨씬 보편적인 관점으로까지 ‘동화주의’에 대한 개념 확대를 시도했다. 그 결과 얼핏 동화와 무관해 보이는 주제들, 각각 ‘생산성’과 ‘위생’이라는 근대적 복음을 통한 동화의 양식을 다룬 제3장 물질적 동화와 제4장 공중적 동화가 ‘서울 동화하기’(이 책의 영문 제목)라는 제목 아래 함께 묶이게 되었다.

둘째 ‘동화주의’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환이다. 저자는 선행 연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차 비판을 가했다. 즉 ‘동화주의’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체로 엘리트들의 논쟁이나 국가 정책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하향식 접근법’을 택함으로써, 동화의 지적 원천과 제도적 형태들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피식민 주체들의 일상적 실천을 탐바꿈시키기 위해 그러한 지배 전술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셋째 식민권력의 권위 해체라는 재정식화로까지

이어진다. 한국 학계에서는 ‘일제’라는 단순하고 잘못된 용어의 사용으로 제국 통치 질서의 분절성을 간과하고, 더구나 조선총독부에는 별고민도 없이 전능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총독부의 능력은 권위의 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매우 가변적이고 부분적이 되며, 심지어는 “식민지 관료들은 대부분의 조선인들(과 여성, 좌익, 하층계급, 그리고 제국 일본의 다른 주변적인 구성원들)을 종속적인 신민의 의무와 참정권을 지닌 서민의 권리 사이에서 집행 유예 상태로 불안하게 떠돌도록 방치해두었”고, 또 “이것이야말로 근대성의 보상으로 유혹하면서도 이를 혼란스럽게도 유예하는 지배 전략, 즉 동화의 핵심”(p. 32)이었다고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식민 지배에 대한 재정식화는 종래의 시기 구분 틀까지 바꾸어 놓았다. 우리의 오랜 상식 속에 식민지기는 1910년 ‘한국병합’을 시작으로 1919년 3·1운동, 1931년 만주사변 혹은 1937년 중일전쟁 등의 사건들을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저자는 그와 달리 공진회가 개최된 1915년, 그리고 경성역이 준공되고 남산에 조선신궁이 들어선 1925년을 새로운 분기점으로 제안한다. 전자는 식민권력이 행정적 무능으로 인해 병합 후 5년이 지나고서야, 그것도 잔인한 폭력을 동원하여 조선인과 재조일본인들을 강압적으로 평정한 후에야, 경성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설명된다. 그리고 후자는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총독부가 문화통치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전략 하에 동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제시된 1937년은 시점 상으로는 기존 견해와 차이가 없지만, 황민화 정책을 식민지 통치성의 새로운 실험, 다시 말해서 동화의 초기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자 그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1915년이나 1925년과 다름없는 시기 구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까지 포함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

제들, 즉 제1장의 도시계획, 제2장의 신사, 제3장의 박람회, 제4장의 도시위생 등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오래된 것은 아니다. 위의 주제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도시사 분야의 역사 자체가 사실은 길지 않다. 2007년 도시사의 현황을 검토한 한 논문에서는 “도시사는 여전히 한국 역사학계의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sup>1)</sup>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 다른 논문에서는 “한국사 연구에서 ‘도시사’는 낯선 분야인가? 그동안 이런 질문에는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렇다’는 대답을 꺼리게 한다”<sup>2)</sup>라고 도시사 위상의 변화 징후를 포착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10여 년이 경과한 현재 그 발전의 정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까닭에 최근에 출판된 단독 저서만 헤아려도 다음과 같은 책들, 곧 이정선의 『동화와 배제 —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역사비평사, 2017), 염복규의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 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이데아, 2016), 김백영의 『지배와 공간 —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임동근·김종배의 『메트로폴리스의 탄생 —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반비, 2015), 송은영의 『서울 탄생기 — 1960-197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 —』(푸른역사, 2018) 등에서는 특정 주제들에 한해서는 이 책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권력도시』의 원서가 간행된 것이 2014년이고, 또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1, 제4, 제5장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이미 논문이나 다른 책의 일부로 간행된 것을 수정해서 수록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각 주제들에 대한 이 책의 선구적 위치는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 
- 1) 민유기(2007), 「한국 도시사 연구에 대한 비평과 전망」, 『史叢』 64, p. 132.
  - 2) 염복규(2009) 「서평: 한국 도시사 연구의 현 단계 — 고통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2007, 태학사) · 吉田光男, 『近世ソウル都市社會研究』(2009, 草風館) —」, 『역사와 현실』 72, p. 315.

책의 간행 혹은 번역이 다소 늦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 책을 일찌감치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 책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독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 다시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글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이 안국선의 『공진회』와 닮아 있는 부분을 고유의 스토리를 지닌 주체들의 존재를 ‘현미경의 시선’을 통해 발굴해 내고, 또 그들이 수렴되는 동시에 변주해 내기도 하는 장소인 ‘공공 공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을 이 책의 독특함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공공 공간’의 ‘공공’은 총독부의 동화 프로젝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들을 기술하기 위한 ‘분석의 범주’로서 사용된다. 또한 ‘통치성’ 개념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저자는 ‘공공’ 개념이 공개성, 자유, 접근성과 같이 자유주의 사회와 연관된 관념으로 해석되는 것에 주의한다. “필자의 관심은 인간 행위자들이 이들 장소와 어떻게 관련을 맺으며 이를 통해 장소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p. 41). 나아가 식민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공’의 장소를 통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적극 교섭하는 모습들을 포착하기 위해 저자는 ‘공공 공간’에 대해 ‘접촉 지대’라는 관점을 취한다. ‘접촉 지대’는 “이전까지는 지리적·역사적 분리 상태에 의해 제각각 떨어져 있던 주체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현전하게 되어 이들의 궤적이 이제 상호 교차하는 것을 지칭”(p. 41)하기 위한 용어이며, 이 책에서 그것은 주요 간선도로, 신사, 궁궐터 및 기타 공공장소들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등장한다.

위와 같은 ‘공공 공간’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이면서 흥미로운 장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자. 먼저 천황 숭배라고 하는 ‘정신적 동화’를 위해 마련된 신사의 제전 행렬에서 신여를 진 신여꾼들은 관례대로 일본어 구호인 ‘왓쇼이’를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인 구경꾼들은 그 대신 ‘얼싸



등등'이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구호로 화답했다. 더구나 극빈층의 조선인들은 제전 행렬을 소매치기나 줌도독질을 통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분투했다. 이를 두고 저자는 조선인들이 천황송배라는 정해진 형식과는 다른 맥락에서 제전 행렬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며, 또 제전의 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보다는 물질적 이익의 획득이라는 어찌 보면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의 참여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장면은 박람회장에서이다. 식민화된 옛 궁궐터를 활용하여 산업적 '진보'를 위한 교육적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박람회장이었지만, 한 사내는 박람회장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다니던 21세의 젊은 주부에 훌쩍 빠져 그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갔다. 남자는 그 집으로 자신의 하인을 열 번도 넘게 보냈다. 남자는 여자에게 남편을 떠나 자신과 야반도주하기를 원했고, 여자는 결국 그를 받아들였다. 한편 박람회에는 경성협찬회에 의해 관광안내원으로 고용된 여성안내원들이 있었다. 그런데 박람회를 찾은 남성들은 전시 물품이나 여성안내원의 설명보다는 여성안내원 자체에 관심을 두고 추파를 던지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전시관에 따라서는 젊은 남성 관람객들이 급증하기도 했으며, 어떤 남성들은 출근하듯 매일같이 전시관을 찾았다. 심지어는 여성 안내원들도 이와 같이 성애화된 환경을 이용해서 나름의 이익을 취했다. 즉 여성안내원들 중에는 한 번에 50전을 받고 뽀뽀를 해 주는 '키스 걸'들도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매력적인 '모던 보이'를 만나 박람회를 무단이탈해 버리기도 했다. 이 같은 구체적 장면들은 '공공 공간'이 동화 프로젝트 기획자들의 의도와 달리 다채로운 주체들에 의해 어디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되어 갈 수 있는가를 매우 잘 보여주며,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특징이 위와 같은 미시적 현장들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동화 프로젝트가 시간대에 따라 다른 빈도로 나타

났다고 말하는데,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서술은 앞서 언급해 온 것처럼 ‘정신적’, ‘물질적’, ‘공중적’이라고 하는 동화 프로젝트의 다양한 양식들에 대한 나열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권력이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보다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빈도의 증가 추세, 혹은 단계적 심화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로 완성된다. 다시 말해서 경성의 도로 건설과 조선신궁의 건립으로 시작된 동화 프로젝트는 중국에는 가정생활의 ‘신토화’에 이른다. 1930년대 후반 신사의 성직자들이 공식 달력과 신사 부적을 대중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신사의 신전과 제례는 가정으로 이식되었다. 그리고 권력은 가정의 신사화와 더불어 집안 대소사에 대한 공통의 실천을 통해 황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신사와 사제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내지’에 비해 훨씬 간섭적인 국가권력의 출현을 수반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가정생활의 ‘신토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부적을 함부로 다루고 황실에 대한 불경스런 언행을 반복했다. 이러한 일상적 실천 속에 동화 프로젝트는 끝내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서사는 우리들에게 식민지기에 대해 어떤 역사상을 제시해 주는가. 민족주의적 입장에 치우친 역사 서술의 치명적 오류는 ‘일제’의 침략성과 그것의 치밀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저항도 소용없었다는 자기패배적 고백을 되뇌이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반대로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는, 현실 문제를 방치하고 그 해결을 유예하기 일쑤였던 식민권력의 빈틈들은 피식민 주체들의 나름의 저항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책이 밝히고 싶었던 것은 국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거나 일제의 동화정책이 성공했는가 여부가 아니라, 침략과 저항이 부딪히는 전장의 구체적인 장소들이며, 이 책에서 말하는 ‘공공 공간’은 바로 그러한 전장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전장은 총탄이 오가는 최전선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 곳

곳이다. 게다가 이 전쟁은 속도전이라기보다는 지구전의 형태를 취하며, 해방 후 새롭게 들어선 권력들에 의해서도 식민지기에 개발된 동화의 양식들은 재현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저항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때의 전장은 또다시 우리들의 일상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일본의 동화 프로젝트의 실패를 헤드라인으로 뽑은 일부 신문들의 서평은 이 책의 의도와는 크게 벗어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해 보자.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의 상향식 접근법은 완전히 성공했는가 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책은 ‘동화주의’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피식민 주체들의 일상적 실천에 주목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자료이다. 피식민 주체들의 일상에 대해 그들 스스로 남긴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일본어 신문·잡지의 기사들, 특히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를 심분 활용했다. 『경성일보』의 사회면 칼럼들은 다민족적인 커뮤니티가 동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애썼기 때문에 그를 위해 피식민 주체들의 일상을 세세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이러한 식민지 아카이브에 대해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조선인의 신체를 그렇게 광적일 정도로 하나하나 열거하려 했던 것은 제국에 대한 충량함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보상해주고자 하는 과잉된 시도”(p. 352)였다고 평가했는데, 자료적 한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해석의 유보들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들 자료를 통해 놀라울 정도로 피식민 주체들의 일상을 복원해 내고 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이 묘사한 일상은 여전히 지배자측 시선의 피사체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 일상들은 파편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결과적으로 일상에서의 저항적 실천 또한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처럼 읽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행위자를 넘어

계급·세대·성별·지역 등 다층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체들의 형성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질문은 일본인에 대한 동화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했는가 이다. 조선인의 ‘수행’에 대한 수많은 의구심들, 또 그를 배신하지 않듯이 동화 프로젝트 기획자들의 의도와 달리 ‘공공 공간’을 다양하게 전유했던 조선인에 대한 서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자는 선택된 자료들의 본질적인 편향성 때문인지 일본인들의 ‘수행’에 대한 의구심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경성신사와 조선신궁 사이에서 ‘정신적 동화’의 실천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결혼식 행사 유치 경쟁을 벌이는 모습들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시체제가 한편에서는 전차를 타고 조선신궁 앞을 지나던 한 여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선신궁을 향해 참배를 했다는 미담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sup>3)</sup> 제일고 녀를 다녔던 한 여학생은 전선의 병사들을 위해 위문품 만드는 일은 때로 엄마가 대신 해 주기도 하는 ‘숙제’에 지나지 않았고 또 참으로 ‘고역’이었다고 회고했다.<sup>4)</sup> 이러한 사례는 ‘현미경’의 초점이 조선인만이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보다 확대되어 맞추어질 필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세 번째는 동화 프로젝트의 양식만이 계승되고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재현되고 있는 것은 통치권력에 의한 동화 프로젝트의 양식만이 아니라, 다민족적 레토릭을 필요로 하는 동화의 한계적 상황도 재현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간행된 『시바조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明石書店, 2019)라는 책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준다. 시바조노 단지는 1978년에 일본주택공단이 도쿄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외 주택단지로 세운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런데 공단의 임대주택은 중장기 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 또한 빌리기 쉬웠기 때문

3) 「感すべき行爲」 『保導月報』 제17호, 1935. 3.

4) 사와이 리에 지음(2000), 김행원 옮김, 『엄마의 게이쵸 나의 서울』, 신서원, p. 118.

에 외국인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는 5,000여 명의 단지 주민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단지 거주 일본인들의 고령화 추세 또한 급격히 진전되면서 급기야는 단지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행해 오던 마쓰리 행사를 자체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어찌면 193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사의 가을 대제 행렬을 조선인 대표들이 조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바조노 단지 주민들은 마쓰리 행사에 단지 거주 외국인들을 참여시킬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다. 단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한 명의 주민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 본 저자는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들 사이에서 ‘공존’을 넘어선 ‘공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문화 커뮤니티간의 상호 교류를 중시하는 ‘interculturalism’을 제시한다. 그것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는 전지구화라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그러나 낯설지 않은 문제들을 안은 채 또 다른 동화 프로젝트가 실험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 또한 생동하는 공간을 늘 목표로 추구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실현해내기는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주민들의 다양성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우리에게 “탈식민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공간화를 수행하는 한국의 행위자들이 20세기에 걸쳐 서울의 공공적 현상들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용기”(p. 374)를 요구한다. 그러나 용기를 갖기도 전에 이미 일상에서의 분투는 곳곳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 결말이 어느 방향을 향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장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역사가 하나의 참조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